

TeraVista, \$8의 MEMS 스위치, 26.5GHz 실현

글 | 이공흠 기자(leekh@semiconnet.co.kr)

고성능 MEMS 스위치 전문 공급업체 테라빅타(TeraVista)는 이 새로운 기술의 도달범위를 확장하는 제품 로드맵을 발표했다. 테라빅타는 검증된 스위치 기술을 이용해 3가지의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출시했다. 첫 번째 제품은 이 회사의 주도적인 DC의 새로운 스위치 구성을 7GHz 스위치 제품 라인에 옮겨놓았다. 두 번째 제품은 DC로 시작하는 더 높은 주파수를 26.5GHz 제품군의 범위로 확장시켰다. 세 번째 제품은 MEMS 스위치 기술을 위해 새로운 저가형 벤치마크를 수립해 새로운 DC를 2.5GHz 라인 범위로 확장시켜 적절한 용량을 위해 \$8 선을 돌파했다. 발표된 제품 라인들 모두는 수많은 파생 제품을 포함하게 될 것이며, 이 파생 제품들은 광범위한 상업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MEMS 스위치 솔루션을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 테라빅타 MEMS 스위치는 가장 특화된 고성능 테스트, 측정 및 통신 장비에서부터 가장 가격에 민감한 상업용 애플리케이션에 이르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MEMS 기술과 관련된 뛰어난 RF 및 광대역 성능을 필요로 한다.

신제품들은 2006년 초 이후 생산된 7GHz 스위치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테라빅타 MEMS 스위치를 설계하기 위해 사용된 특허 보호형 설계 및 공정은 검증된 기술에 기반한 신속한 파생 제품 개발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테라빅타 MEMS 스위치와 관련된 높은 수준의 품질과 신뢰성은 이러한 새로운 제품군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테라빅타는 2007년에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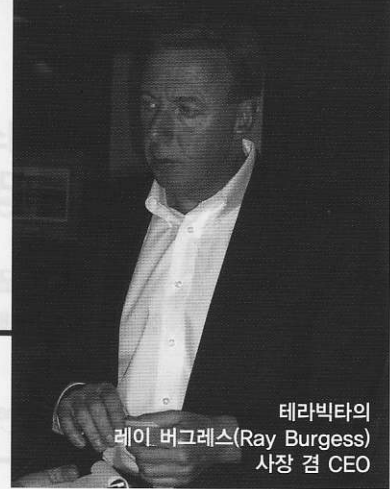
테라빅타의 레이 버그레스(Ray Burgess) 사장 겸 CEO는 “테라빅트 스위치 기술은 전자 장비 업계에서 가장 명성있는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고성능 위상 배열 안테나(phased array antenna) 및 측정 장비에서부터 자동 테스트 장비 및 차세대 무

선 커넥티비티와 같은 대용량의 가격 민감형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다”면서 “고객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고객들의 요건을 만족시킬 포트폴리오를 현재 만들어, 고객들의 제품 범위에 MEMS 스위치 기술 사용을 주도하고 있다. 모든 신제품들은 소형의 사용하기 쉬운 표면 실장 폼팩터에서 높은 선형성, 낮은 삽입 손실, 뛰어난 반복성의 MEMS 스위치 속성의 리더십을 구현한다. 우리는 이러한 속성들을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 실현시켜, 새로운 고객들은 대용량 상업용 제품으로 일관성 있는 소매 가격으로 구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했다.

프로스트 & 설리반 SMT(Surface Mount Technology) 및 일렉트로닉 컴포넌트 리서치 그룹(Electronic Components research group)의 키스 로빈슨(Keith Robinson) 산업 매니저는 “테라빅타는 공정 및 패키징에서 실장 성능 부문에서 독자적인 요소를 결합해 MEMS 기술에 기반한 신뢰성 높은 고대역폭 스위치를 구현한다”면서 “특정 사용자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잘 수립된 기준의 기술에서 파생제품 창조는 논리적인 과정이다. 새로운 구성 및 공격적인 소매 가격은 MEMS 스위치 기술과 포지션 설정이 잘 되어 릴레이 및 솔리드 스테이트 스위치와 같은 현 기술과 매우 알맞게 견줄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7GHz, TT712-CSP에 대한 DC는 2006년 초반 이후부터 대량 생산으로 선적되고 있으며 200곳 이상의 업체들이 이 제품으로 설계하고 있다. 테라빅타는 1H07에 7GHz 라인 이내로 파생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며, 보급형 DPDT와 SP4T 구성으로 시작한다. 최초의 더 높은 대역폭 제품 라인은 DC에서 26.5GHz 요구조건을 커버할 것이며 1H07으로 출시될 것이다. 저가형의 2.5GHz 제품 라인은 2H07에 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SN**



테라빅타의
레이 버그레스(Ray Burgess)
사장 겸 CEO